

교수
논단

북한의 대외교역현황

〈표 1〉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1989)

자료출처: 국토통일원

	단 위	한 국	북 한
인 구	천 명	42,380	21,375
경제활동참가율	%	59.5	64.9
인당GNP	달 러	4,968	987
경제성장률	%	6.7	2.4
수 출 액	억 달러	614.1	19.5
수 입 액	"	568.1	28.5
무역수지	"	46.0	-9.0
외채총액(순외채)	"	294(30)	67.8

인이 있다.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여 1980년에도 계속되었으며(4천6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1984년 제외) 무역적자폭이 1980년대 후반에 최고액의 20% 내외로 증가하여 1989년말 현재 외채총액은 약 68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어 총외채규모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큰 외채규모이다.

지역별 무역구조

북한의 무역을 지역별 및 국가별로 보면 대외방과의 무역은 1970년대 초에 급격히 늘어나 1974년에는 총외교역량의 42%에 달하였고 서방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북한 총수입의 54%를 차지하였다가 그후 계속 감소하여 1980년에 28.3%였으며 1985년부터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여 1989년에는 28.5%를 기록하였다. 대개발도상국과의 무역비중은 1970년 2.4%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978년 22%에 도달하였으나 그후 감소해 1980년에는 16.9%에서 다시 감소하여 1986년 9%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에 15.6%를 기록하였다.

역적으로 크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총외교역량의 증가율은 7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증가에 크게 좌우되었지만 개발도상국과의 교역량의 신장이 교역증가의 원동력이었다. 북한과 중국·쿠바 및 몽고와의 교역은 1980년대에 들어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에는 8%내외의 안정적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어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1986년 이후에는 총외교역

규모의 상대적 열세에 기인한다. 뒤이어 기계 제조제품이 27.2%, 재료별 제조제품이 15.6%, 비 식용원료 8.3%로 나타나 많은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산업내부의 수출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자점이 있으나 남한이 잠재 품과 기계 및 운수장비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반면 북한은 재료별 제품과 비식용원료의 수출비중이 높고 수입은 남한이 운수 장비, 재료별제품, 비식용원료의 비중이 높으나 북한은 광물성 원료, 기계 및 운수장비, 재료별 제품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니시리즈-교수 '학회'를 점검한다

학문통한 노동문제 해결사

'한국노동경제학회'를 찾아서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문제를 본질적으로 연구하여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연구자들의 의지의 결실로 1976년 4월 창립된 학회이다.

현 사회의 불안정한 요소중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문제는 그 동안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누적되어 온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제 노동문제는 작업 환경뿐 아니라 노동력의 수급문제, 구조적인 저임금문제, 노사관계등 점점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노동문제는 경제·경영·사회·법률학등 여러학문분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노동경제학회는 동학(同學)집 단으로서의 학문연구수준을 높여나고 있다.

이 학회의 학문연구 방향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옹호하고 있는 근대경제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정치경제학을 배려하되 이를 보완하는 ‘한국사회경제학회’와는 차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올바른 노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뜻을 맞추어 학술적으로 분석·연구하고 있다.

연구발표회는 1년에 3~5회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해마다의 연구성과를 담아내고 있는 ‘노동경제논집’은 지난 77년 9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13권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노동경제학회, 노동법

학회, 인사관리학회, 노사관리학회등 노동 문제 관련학회와 공동연구발표회를 하는 학회와 가깝으로써 전문화·세분화된 관련 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연구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가임회원은 각 대학의 전공교수를 포함 해 거의 3백여명에 이르며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한편,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 및 기업체 특히 노무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학회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학회의 운영은 회원과 임원진의 회비와 관련경제단체의 보조금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회가 그렇듯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학회의 모임이 있을때도 회원의 약 50%의 저조한 회원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 학회에 가입한 한 채 개인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아 학회활동주체들은 한정적 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본교 전기교 (정경대·경제)교수가 8대 회장을 맡고있다. 70년대말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회장의 연임을 거부하는 것이 이 학회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교 전기교교수의 김수근(정경대·경영)교수가 6대회장을 역임했고, 안재욱(정경대·경제)교수는 현재 간사로 이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은희 記者)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동정책 분석·연구

자급경제 위한 계획무역

상대국과 협상 통해 쌍무적 교역 경제적 효율, 수익성 상대적으로 경시돼

강 정 모
(사회대교수·무역학)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가독점, 자금자급경제 및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경제수행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위한 외화 조달을 위해 수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무역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은 철저한 계획경제에서 수입우선주의, 수출입균형주의, 바타무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국가계획위원회, 정무원, 무역부 및 관계부처, 무역상사들이 참여하여 수립한 수진 무역 계획에 기초하여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품목별 쿼터를 설정하는 쌍무적 성격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무역상대국에 따라 교역방식에 차이가 있다. 공산국가들과의 교역방식은 수출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수입은 억제하고 서방국가들과는 경제 및 기술의 의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무역은 자금자급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역에서 경제효율이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1989년 북한의 GNP는 남한의 1/10수준인 211억 달러이고 1인당 GNP는 987달러로 남한의 1/5수준에 불과하고 무역의존도는 22.7%로 남한의 56.3%보다 훨씬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경제제 및 개발전략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북한의 총무역액은 1960년에는 주로 대공산국교역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1970년대에는 대서방선진국에 대한 교역확대로 매년 급격한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1980

북한의 수출은 1970년 3.7억달러에서 1989년 19.5억달러로 연평균 9.1%의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1989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4.3%감소하여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수입은 같은 기간중 4.4억달러에서 28.5억달러로 연평균 10.3%의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1989년 수출실적은 1988년에 비하여 11.4%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해 대외 지불능력을 거의 상실한데 큰 원

인이 있다. 무역의 지역별 및 국가별로 보면 대외방과의 무역은 1970년대 초에 급격히 늘어나 1974년에는 총외교역량의 42%에 달하였고 서방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북한 총수입의 54%를 차지하였다가 그후 계속 감소하여 1980년에 28.3%였으며 1985년부터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여 1989년에는 28.5%를 기록하였다. 대개발도상국과의 무역비중은 1970년 2.4%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978년 22%에 도달하였으나 그후 감소해 1980년에는 16.9%에서 다시 감소하여 1986년 9%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에 15.6%를 기록하였다.

역적으로 크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총외교역량의 증가율은 7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증가에 크게 좌우되었지만 개발도상국과의 교역량의 신장이 교역증가의 원동력이었다. 북한과 중국·쿠바 및 몽고와의 교역은 1980년대에 들어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에는 8%내외의 안정적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어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1986년 이후에는 총외교역

규모의 상대적 열세에 기인한다. 뒤이어 기계 제조제품이 27.2%, 재료별 제조제품이 15.6%, 비 식용원료 8.3%로 나타나 많은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산업내부의 수출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자점이 있으나 남한이 잠재 품과 기계 및 운수장비의 수출 비중이 높은 반면 북한은 재료별 제품과 비식용원료의 수출비중이 높고 수입은 남한이 운수 장비, 재료별제품, 비식용원료의 비중이 높으나 북한은 광물성 원료, 기계 및 운수장비, 재료별 제품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북한의 총수출중 재료별 제조 제품의 수출이 395.4백만달러로 34.4%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이는 북한의 주종 수출품인 비금속광물(무연탄), 비철금속(아연, 금, 마그네사이트분말 등) 철강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은 광물성 원료 및 제품이 581.1백만달러로 34.4%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석유 및 석유제품, 코크스, 역청탄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비슷한 처지의 남한이 1989년 각각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무역은 지

의 20% 내외를 기록하였다.〈표 1〉참조) 북한의 무역적자를 지역별로 보면 총외교역의 70%정도를 차지하는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 적자가 대부분이며 특히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적자가 뒤를 잇고 있는 반면 일본과 태일랜드의 무역에서는 작은 흑수마 1987년 이후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동, 아프리카, 미국, 호주 지역과도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 지역은 총무역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의 무역적자를 보였다.

북한의 총수출중 재료별 제조 제품의 수출이 395.4백만달러로 34.4%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이는 북한의 주종 수출품인 비금속광물(무연탄), 비철금속(아연, 금, 마그네사이트분말 등) 철강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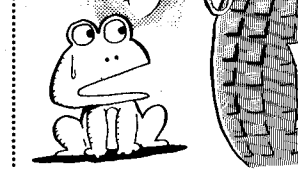
수입은 광물성 원료 및 제품이 581.1백만달러로 34.4%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석유 및 석유제품, 코크스, 역청탄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비슷한 처지의 남한이 1989년 각각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무역은 지

고성능 미제폭탄의 안전핀

위협성,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

마치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들의 표현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내일 아침엔 40여년 전의 어느 여름날 새벽같은 분위기를 느낄 것이다. 소련대통령이 유사이래 최초로 작은 나라, 한국을 방문하고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를 앞두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종결되고 냉전시대가 종결되는 시점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상공을 파편적으로 떠돌고 있는 동-서화해와 미국의 강경발언은 지나치게 상반된 논리라 믿기지 않는다. 결코 전에 승리한 제국주의 미국의 오만에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기대는 여지없이 박살난 셈이다. 이는 미국의 제3세계 구구변화화하도 무관하지 않다. 적국적



한반도의 상공을 파편적으로 떠돌고 있는 동-서화해와 미국의 강경발언은 지나치게 상반된 논리라 믿기지 않는다. 결코 전에 승리한 제국주의 미국의 오만에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기대는 여지없이 박살난 셈이다. 이는 미국의 제3세계 구구변화화하도 무관하지 않다. 적국적

군사개입을 통한 미국제일주의적 해결이 언제까지 갈 지의 문제이다. 강대국의 발언은 초초하면 그야말로 한국은 보잘 것 없다. 더욱이 미국관리의 발언은 한국의 안전은 고성능 미제폭탄의 안전핀에 달려있고 한반도의 안보 또한 미국의 지휘봉 하나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대한 미국의 착각에 희생될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싶다. 한국인은 미국소련들이 던지는 물장난에 생사를 가름해야 할 우물안 개구리로 보이는가.

한편 일련의 강경발언에 대한 국내외의 해답은 한자어로 'Welcome'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요구 목숨, 주한미군 계속주둔, 국방장관의 대북위협성 발언, 든든한 배경(Back ground)이 있다는 듯 의기양양한 정권의 꼴이 우습다.

미국과 No씨는 자신의 호기심 발언과 행동이 가져올 엄청난 불행을 보게될 것이다. 한국인은 '은혜의 나라' 미국의 영원한 수혜자가 아니라 그들의 간판전 태도를 더이상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는 바로 이땅 민중들 하 나하나에 있음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어야 할 때다.

대우가 있습니다 ㉞

“스물 한살의 봄은 한번 뿐...”



▲이씨의 회사를 찾은 은이양
▼(주)대우 정회주 상무(투자·인사실)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은이양



“아빠의 대학시절은 참 어려웠지. 옷이 마땅치 않아 군복을 물들여 입고, 복사기도 없어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다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남만가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 어차피 여류라고 생기는 것만으로도 길진 토끼고기찌게에 막걸리를 시켜놓고는, 감문을 팔면 토끼로 밥이 새는 줄도 몰랐지. 너와 함께 교정을 거닐어보니 문득 그때의 젊은 열기가 배어나오는 듯 싶구나. 아빠가 열사의 나라 리비아에 모래사막을 뚫고, 낯선 땅 나이지리아에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도 그때의 젊은 열정과 패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아빠처럼 너에게 스물 한살의 봄은 영원히 한번 뿐,

항상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맑고 곧은 눈을 가져야지. 애 학문을 하는가. 공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생각해 보고... 아빠 때보다 값진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찌워 사회로 나왔으면 좋겠구나.”

성실하게 뿌린 씨앗만이 성취의 보람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애써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이 땅의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